로컬플러스

원광대학교 박맹수 교수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선임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원불교학과 박맹수(사진) 교수가 한국근현대사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근현대사학회는 국내·외 한국근현대사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사학계 학회로서 박맹수 교수는 앞으로 2년 동안 학회를 이끈다.

원광대 원불교학과와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부원장,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위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편집위원, 광주 아시아 인문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박맹수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해 한글판 '동경대전',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동학농민혁명과 제국일본', 일본어판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등 다수의 동학 관련 서적을 저술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해수청과 간담회 개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군산시는 14일 군산항 현안사업 협의와 물동량 증대 등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군산해수청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산항 발전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군산시장과 군산해수청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지역경제 위축과 관련하여 군산항을 통한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했다는데 그 의의가 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군산항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군산항 항로준설에 농어촌공사의 직접준설 조기착공과 포트세일을 통한 신규항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응항 정온도개선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국비가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경, 연말 음주운항 특별단속

해경이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연말연시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음주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많은 사람이 승선한 영업형태 선박의 음주운항도 줄지 않고 있다.

특히 해경은 겨울철에 발생한 해양사고가 인명피해를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박 출·입항이 빈번한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선과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운항자의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거부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특별치안활동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연말·연시 등 밤거리 안전을 위한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강력범죄·대형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평온한 치안확보를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밤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동안 취약시간·지역 위주의 가시적 경찰활동 집중,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해 야간시간대 순찰차 배치를 확대하고, 경광등을 적극 활용하며, 여성안심귀갓길 등 취약장소 위주 거점근무·순찰을 강화하고 '여성불안신고' 접수 시, 신속·세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중앙지구대장 김용대는 "안전한 치안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농축산부, 대한민국 명품 쌀 선정평가

익산 탑마루쌀 우수상 선정

익산시 공동브랜드 탑마루쌀(골드라이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명품 쌀 선정평가'는 2015년까지 행해지던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가 개편된 것으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판매 우수 브랜드 및 농협·RPC 관련협회, 지자체(시·도)추천 30개 고품질 브랜드에 대해 평가가 실시됐다..

익산탑마루쌀은 2013년 1위(금상), 2014년 2위에 이어 다시 올해 우수상에 선정돼 탑마루 쌀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것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인정하는 명실공이 명품 쌀로 인정받게 됐다.

평가는 소비자단체협의회, 농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농협중앙회, 식품연구원, 홈쇼핑 등 유통업체가 참여해 지난 8월 현장평가를 시작으로 쌀 품종순도(DNA), 품위평가, 식미평가, 표기사항, 매출액 등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서 이뤄졌으며 탑마루쌀은 모든 부분에 상위로 랭크되면서 우수상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탑마루 쌀 경영체인 명천영농조합법인은 정부 시상을 비롯하여 각종 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시상식은 12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탑마루 쌀은 익산에 주요 작목인 벼를 고품질화하기 위해 2010년에 처음으로 공동브랜드로 개발해 선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 탑마루 담당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전문 인력을 배치,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부터 출하까지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생산, 전국에 출하되고 있다.

그간 학교급식은 물론 수도권 소비자들을 겨냥한 공격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프랜차이즈 대표 그룹 본아이에프(본죽)을 비롯하여 SPC그룹(파리바게트)등 대형 식자재 기업과 대형마트 등에 출하되어 탑마루쌀을 홍보 및 판매함으로써 대한민국 명품쌀로 선정되는데 일조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명품쌀 중 하나로 선정된 데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 땀 흘린 농민과 탑마루 쌀 경영체인 명천영농조합법인의 헌신적인 노력, 행정의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삼위일체가 어우러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탑마루 쌀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탑마루쌀(골드라이스)은 2010 전국 브랜드 고품질쌀 평가 3위, 2011 전국 브랜드 고품질쌀 평가 2위, 2013 전국 브랜드 고품질쌀 평가 1위, 2014 전국 브랜드 고품질쌀 평가 2위, 2016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평가 우수상선정 등을 수상받았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예술의전당, 내년 정기대관 18% 증가

접수 결과 총 188건…2013년 개관이후 대관건수 · 가동률 꾸준히 상승

군산시는 예술의전당 2017년 공연장·전시실에 대한 정기대관 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188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계는 지난 2016년 정기대관 159건 대비 18% 증가한 건수로, 2017년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이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 개관이래 가장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대관 이후에는 매월 마지막 주 월·화·수요일 수시대관 신청을 받으며, 이 기간 중에도 130건 이상의 공연대관 접수가 예상된다.

군산예술의전당은 2013년 개관이후 공연, 전시 창작활동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관건수와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

대관건수는 2013년 219건, 2014년 286건, 2015년 270건, 2016년 290건으로 2013년 대비 32.4%가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월등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동률 또한 전국 문화회관 평균 가동률인 55.4%를 훨씬 뛰어넘어 2014년 64.4%, 2015년 61.2%(메르스 여파로 소폭 감소), 2016년 67%로 개관이후 최고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군산예술의전당이 지역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무대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저렴한 대관료와 완벽한 공연장 시설로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진인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개관 4년차인 2017년도에는 지역예술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폭넓은 공연예술 활동지원을 계획해 보다 더 풍성하고 알찬 지역예술인의 활동무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 시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해명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은 "14일 오전 11시경 시청프레스 센터에서 임형택 시의원의 제량사업비에 관한 페이스북 내용의 문제점을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소 시의장은 " 본질은 임형택 시의원이 SNS올린 것에 대해 사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으나 현재는 왜곡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오해부분을 먼저 사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 시의장은 "임형택 시의원이 SNS에 올린 내용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의장은 "임형택 시의원의 SNS에 올린 내용 3가지는 ▲그런데 과거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들이 호주머니 돈 쓰듯이 사용하는 폐해가 많았습니다. 예산 사용에 원칙과 기준도 없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에서는 수 년 동안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 도지사가 사용하는 예산은 단 돈 1원도 예산서에 모두 표기되어, 지방의회 심의를 받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에도 유일하게 공개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지방의원 숙원사업비 내용입니다. 이 예산 만큼은 누구에게도 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라고 말한 내용을 지적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기술한데 대해 마음에 와닿는 공개적인 사과를 먼저 해주길 요청했다.

반면에 소 시의장은 " 재량사업비의 예산심의 해서 예산서 내 기입해서 예산서에 공개되고 있고 2017년 숙업사업계획을 세울 때 해당부서의 요청과 협의 등을 통해서 아파트, 경로당 및 도로포장 등에 예산을 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형택 시의원은 "오해부분에 관해서 지난 12월 5일자에 시의원 모두에게 불괘감을 준 부분에 관해서 문자로 사과했고 추후 총회를 연다면 진정성있는 공개사과를 하겠다" 며 "다만 문제의 본질이 재량사업비에 공개 여부에서 생길이며 이와 관련된 예산 수립시에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 호소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나눔의 날 행사 개최

익산시는 14일 오후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올 한해 지역사회의 춥고 어두운 곳과 소외된 이웃, 법과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한결같은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단체, 기업, 단체, 자원봉사자 등 41명을 선정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나눔 동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리동로타리클럽에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상과 모현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희망동행 도지사 감사패를 전수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복지비전 사업 이용수기 및 독서 감상문 공모를 통해 익산시장상 4명, 익산시의회 의장상 3명, 익산교육청교육장상 2명이 각각 상을 받았다.

정헌율 시장은 "새해에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 모든 시민이 행복한 복지 허브화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올 한해 희망복지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생계비, 물품지원, 집수리 등 밑반찬 봉사 및 청소년에게는 희망나무 장학금 등을 연계 7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나눔마켓·뱅크 등을 운영하여 매월 700여명과 시설 등에 물품을 지원하는 등 총 7억2천여만원을 연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높아지는 사랑의 온도 한겨울 추위도 걱정없어

군산시, 나눔의 손길 이어져

14일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공장장 주선태)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연탄 4000장(2백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직원 20여명이 참석해 사랑과 정성의 온기가 가득 담긴 연탄을 어려운 이웃 13세대에 전달했다.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은 연탄나눔 봉사를 끝으로 2016년 사회공헌 활동을 마무리 하며, 2017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앞서 13일 (유)신양해운(대표 나형운)은 옥도면사무소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1500만원과 백미 140포(20kg, 5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나형운 대표는 옥도면 연도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현재 해운사업을 펼쳐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나형운 대표는 "옥도면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군산 만들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섬지역 학생들의 장학금 및 이웃돕기에 사용하고, 백미 140포는 저소득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군장에너지는 지난달 김장김치 나눔행사에 에너지(연탄 및 등유)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군장에너지(주)는 소룡동과 미성동 저소득층 20세대에 겨울나기에 필요한 연탄 및 등유 (528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군장에너지(주) 임직원들은 나눔 실천을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랑의 1004운동(구좌당 1004원씩 기부)'을 실시해 성금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나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기업의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군장에너지(주) 박준영 대표는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이번 나눔 행사가 작은 사랑의 밀알이 되어 기업들의 착한 나눔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생활개선 익산시 연합회, 다문화 가족 한마음 잔치

생활개선 익산시 연합회 (회장 정미숙)는 14일 오전 농업인교육관에서 관내 다문화가족과 생활개선회원 2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개선회원 한마음 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생활개선회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다문화가족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농업농촌을 이끌어 가는 희망지기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인 김근영(춘포면/31세)씨는 '한국에서 찾은 나의 삶'이란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해 큰 박수를 받았다.

김 씨는 농사짓고 있는 메론과 토마토를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기 위해 운전면허취득에 도전한 이야기와 농사기술을 배우기 위해 익산농업인대학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육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결혼이민자여성뿐 아니라 생활개선 회원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줬다.

정미숙 회장은 "생활개선회원들은 앞으로도 이웃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정을 나누며 농촌정착을 돕고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생활개선 익산시 연합회는 읍면동22개회 463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호원대 K-패션 창의인재양성사업단 전시회 개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군산 예술의전당에서 K-패션 창의인재양성사업단의 디자인 콘테스트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호원대 K-패션 창의인재양성사업단은 지난달 'K-패션, 글로벌로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대회를 진행했으며, 이번 전시회에는 6점의 본상 수상작을 비롯한 총 80여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적인 모티브를 활용한 아웃도어, 아동한복, 여성복 디자인 등 의류 및 ICT를 활용한 LED 패션소품, 조각보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작품 등 실용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로 구성됐다.

전시회를 담당한 권현주 교수(패션디자인학과)는 "이번 전시회 작품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하며 K-패션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동시에 차세대 트렌드 산업으로서의 K-패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대 K-패션 창의인재양성사업단은 지난 8일 창원대에서 열린 '2016 대학특성화사업 전국포럼'에서 신은지(패션디자인 4년) 학생의 창업사례가 우수학생 사례로 선정되어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군산=문정곤기자